

# 전통·지방문화가 ‘문화시대’ 경쟁력의 원천

## 新湖南誌

<14>

###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 제4부-일상에 서린 민족문화의 원형

◎ 신에게 바라는 소망, 마을굿

#### 나경수 전남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그간 지방문화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소수의견으로 주목받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 전통문화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와 역사가 공존하고, 첨단과 전통이 함께 할 때, 그 문화는 탄탄해질 수 있다.

‘문화의 세기’라고도 불리는 21세기에는 풍부한 전통과 다양한 지방문화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농업사회에는 땅이라는 지표자원이, 공업시대에는 지하자원이 중요했듯이, 이제 도래한 문화시대에는 지방문화와 전통문화와 같은 문화원형이 부존자원으로서 역할을 크게 맡기 때문이다.

전승되어 오는 문화유산 중에서도 마을굿은 민족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보여주는 두 가지 원천 자원이 있다.

하나는 단군신화요, 다른 하나는 고대의 ‘국중대회’이다. 마을굿은 단군신화의 우주목(cosmic tree) 관념과 천부지모(天父地母)라는 신앙체계 뿐만 아니라, 국중대회의 의례적 형태나 세시적 기능도 함께 가졌다.

마을 단위로 모셔지는 마을굿은 이름도 형태도 모두 다르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부군당제, 강원도지역은 성황제, 경상도지역은 곱박이제나 별신제, 호남지역에서는 당산제로 부르는 마을이 많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 당산제가 아닌 동제, 이사제, 당제, 거릿제, 별신제, 천제 등 다른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전주조사를 끝낸 전남지역의 경우, 현재 900여개의 마을에서 당산제가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동제와 마을굿은 한자와 우리말이라는 차이 이외에도 약간의 범주적 차이가 있는 말이다. 마을굿은 마을의 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의례적 행위 외에도 마을제사를 모시면서 병행되거나 부대적인 뒷풀이(음복), 달집태우기, 줄다리기, 풍물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매년 치르는 마을굿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택일 과정을 통해서 매년 새로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정한 공식은 거의 정초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를 즈음하여 올리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설날부터 대보름 사이에 택일을 하는 마을도 있다. 1년의 운세를 정초에 보정받으려는 신앙심에서 기인한 까닭이다.

모시는 신격도 다양하고, 신으로 간주하는 신체도 다양하다. 호남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찾아지는 신격은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로 불리는 남산과 여신이 대표적이다.

이들 신격을 표상하는 신체 역시 수목형이 가장 많다. 마을숲이 조성된 마을은 대개 역사가 오래고, 또 마을제사를 모셨던 곳이다.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믿는 천부지모와 이 둘이 교호하는 천지소통 또는 남녀교합의 형상체로서 수목



‘지리산 천년송(千年松) 당산산신제’에 앞서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 주민과 산내농악단이 어우러져 길놀이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음력 1월 10일 당산목인 천년송(천연기념물 424호) 일원에서 지리산의 안녕과 마을 주민들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내오고 있다. <광주일보 DB>

### 민족문화 역사성·정체성 간직한 마을굿 당산제·천제 등 전남 지역 900여개 전승 부대 행사로 달집 태우기·줄다리기 등 마을의 안녕 기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 신체의 구실을 맡는다.

방식은 종교적 요소와 세속적 요소를 아우른다. 마을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방법은 경건하며, 대부분 주자가례의 제례방식을 따르고 있다. 부안의 위도, 영광의 낙월도나 여수의 개도처럼 일부 도서해안지역에서 무속인이 주재하는 마을굿도 찾아지는데, 이들은 원형적이거나 잔존형태일 것이다. 유교식 제사방식이 일반화되기 이전의 형태였을 수 있다.

유교식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관장한 여러 사람을 미리 선정한다. 유교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고른다. 이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때로는 일반인과 격리될 정도로 철저한 금육기간을 보내게 된다.

제사를 모시고 나서도 마을이 정한 일정한 기간은 조심해야 한다. 헌관, 축관, 유사, 화주 등이 해당하며, 이들 중 제물을 장만하는 화주가 가장 주목을 받고 조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물을 장

만할 때, 미리 마을 우물에 금줄을 치고, 또 제물을 마련하는 화주집에도 금줄을 치고 황도를 깔아 잡인의 출입을 막는다. 금줄과 황도는 제사와 관련하여 성스러운 장소를 정화하고 보호하는 장치이다.

마을제사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앙을 견어내고 복을 맞아들이는 제액초복(除厄招福)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소망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자연적 영역을 가진 마을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제사이다. 마을굿이 정초에 행해진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제의 목적이 일년 내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의식임을 읽기는 쉽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의 유효기간은 단 1년만이다.

따라서 매년 그때쯤에 다시 반복된다. 마을굿은 반복적인 연중행사며, 정기의례이자, 신년의례로서 1년이라는 시간과 한 마을이라는 공간에 대해 영향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을제사를 모시는 마을마다 영험담이 전한다. 가장 일반적인 영험담 중 하나는 마을에 도둑이 들어 소를 끌고 밤새 도주를 했으나, 당산나무 주위만 맴돌다 날이 새자 소를 당산나무에 묶어두고 도망쳤다는 내용이다. 당산신을 마을 수호신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진 영험담이다.

마을제사와 병행 또는 부대적인 행사도 많다. 본래 제의라는 것은 신을 즐겁게 하면서도 인간도 함께 즐기는 소위 오신(娛神)과 오인(娛人)의 복합적 기능이 작동한다. 엄격하게 마을의 제사를 모시고 나면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하는 흥겨운 뒷풀이로서 음복행사가 있다. 복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야말로 마을제사의 본령을 바로 지시해주는 낱말일 것이다.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율주(酒)이다. 풍물패가 함께 하여 마을 단위의 멋들어진 작은 축제가 연행된다. 고대 국중대회의 유습이 오늘날까지 실현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또 이를 전후하여 지신밧기도 하게 된다.

호남의 동부 산지지역에서는 달집태우기가, 서부 및 해안지역에서는 줄다리기가 대부분 무렵에 성행했다.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여 마을의 절정에 해당하는 놀이판이 벌어진다. 그러나 줄다리기와 달집태우기가 단지 놀이만 아니다.

불처럼 활활 마을이 잘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 달집태우기고, 암줄과 숫줄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용을 즐겁게 하여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기원하는 것이 줄다리기였다. 이들 놀이 역시 세속적인 의미의 놀이문화에 그치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심 가득한 의례적 행사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앞으로 문화적 경쟁력은 무형문화재에 의해서 결정될 전망이다. 누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무형문화재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화적 창조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족문화로서 유형문화재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무형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창조력이 과소평가되어 온 것에 대한 상대적 반성이 일고 있다. 앞으로 창조산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며, 따라서 창조적 소재로서 무형문화재만 한 것이 없다. 무형문화재의 가변성은 다른 말로 하자면 창조성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북선이 중요하고, 고려청자가 값어치가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품이라 하는 백제금동대향로 역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도라 한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전승되고 있다면, 또 그에 관련된 충실한 기록이 보존만 되어 있더라도 그것들을 수백 수천 개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창조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형문화재이며, 그런 점에서 종합적 민족으로 전승되어 왔던 마을굿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전 한국민속학회 회장  
-현 진도학회 회장

#### 전라도 들여다보기

#### 정충신 장군과 금남로

김형주

금남공 정충신(鄭忠信·1576~1636)은 부친 금천군(鎭川君) 윤(倫)과 모친 영천이씨 사이에 태어났으며 자는 가행(可行),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고려말 남해안에 출몰하는 왜구(倭寇)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우리나라 수군(水軍)의 창설자로 추앙을 받는 정지(鄭地)장군의 9대손이다.

후손들이 이후 쇠락하면서 다소 한미한 가문이 되었지만, 공은 끊임없는 용맹정진과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성과를 내는 도전정신, 주변사람들과의 특유의 친화력 등을 발휘하여 수많은 고비를 지혜롭게 이겨내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 권윤(權胤)의 휘하에서 종군하였다. 이때 권윤이 문서(狀書)를 의주의 행재소(行在所: 국왕의 임시거처)에 전달할 사람을 구했지만 응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17세의 어린 공(公)이 자청하여 단신으로 여러 겹의 왜군 무리를 무사히 뚫고 지나 행재소에 도착하였다. 한눈에 비범한 인재임을 알아본 병조판서 이항복이 그에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머리가 총명하여 친아들같이 사랑하였다.

그 해 가을에 행재소에서 실시하는 무과시험에 합격하여 여러 무관직에 복무했고 1621년 만포첨사로 국경 수비를 담당하였다. 1623년 안주목사로 방어사를 겸임하고,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 때는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전부대장(前部大將)이 되어 이괄의 군사를 황주와 서울 안산에서 무찔러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에 봉해졌다.

공은 1627년 정묘호란 때는 부원수를 지냈고, 1633년 조정에서 후궁(嬪)에 대한 세폐의 증가가 이유로 후궁과의 단교를 하려는 것을 반대하여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 나와 이듬해 포도대장·경상도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 1636년 병란으로 별세하자 조정에서 어복(御服)을 주어 수의로 삼게 했으며, 관아에서 예장(禮葬)을 치르도록 하였다. 광주시 청옥동에 소재하는 경령사에 배향되어 있으며, 저서로 각종 시문과 군사의 행적을 기록한 ‘금남집’(鎭南集)·‘백사북천일록’(白沙北遷日錄) 등이 있다.

작은 체구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어린 금남공이 행재소에 문서를 전하러 갈 때 다음의 일화가 전해진다. 먼저 문서를 꺼내 부인이 남겨지도록 종이를 세로로 잘라내어 가는단란 한지 새끼를 꼬았다. 얼굴과 전신에 감장을 칠하여 피부병환자로 위장한 다음, 지승(紙繩)으로 엮은 망태기를 둘러매고 유유히 적진을 통과하여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였다.

금남군(鎭南君) 정충신의 공신 군호에서 비롯된 ‘납죽의 비단길’ 금남로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성스러운 장소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 도로는 일제강점기에 명치정(明治町)이었고, 본정통(本町通)으로 불린 이웃한 충장로와 함께 광주시대 핵심간선이었다.

해방 이후 금남로로 개칭되었으며 노복이 2차 선으로 협소하여 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1968년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전남도청 앞의 새로 단원 도로 양쪽으로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의 건물들이 즐비하면서 금남로는 한동안 지역 행정과 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도청이 이전하고 상무지구가 새로운 핵심업무 구역으로 떠오르면서 화려했던 금남로의 위용도 적지 않게 위축되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과 더불어 금남로의 새로운 중흥시대를 기약해본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